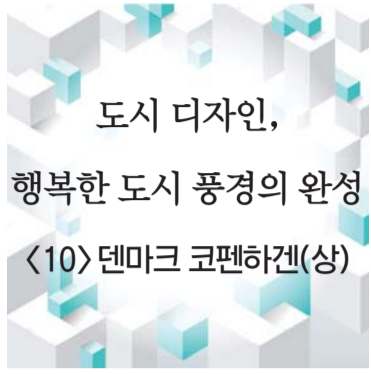


62개국서 공수한 소품 설치, 다양성 꽃 피우다



과격하고 소요 끊이지 않던 빈민가
다인종 거주지 뇌레브로 지역
사회 통합 '수페르킬렌' 프로젝트
블랙·레드·그린, 3색 공간 배치
거주민 삶·이야기 담고
팔레스타인 붉은 흙·태국 링 등 설치
지속가능한 재료에 사후관리 철저
“주민들 주인 의식 갖는게 중요”

코펜하겐=글·사진 김미은 기자



민간인들의 삶을 깨어난 수페르킬렌 프로젝트 중 '블랙 마켓'의 작은 언덕 위에서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.

광장 한쪽에 복싱 링이 설치돼 있는 게 좀 뜬금
없다 싶었다. 어느 차과의 광고 내온사인인지 '치
아' 모형을 얹은 길다란 조형물이 눈에 띈다. 검은
문어 모양의 미끄럼틀 위에선 아이가 오르락 내리
락하며 놀고 있다. 다양한 디자인의 벤치와 탁자는
눈길을 사로잡는다. 이 모든 것엔 다 '이야기'가 있
다. 무엇보다 두드러진 건 색깔이다. 검정, 초록, 그
리고 붉은색.

코펜하겐 외곽 뇌레브로(Nørrebro) 지역 '수페
르킬렌(Superkilen)' 프로젝트는 흥미로웠다.
2012년 완료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덴마크 예술
그룹 '수페르플렉스(SUPERFLEX)'를 인터뷰한
후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담은 책자 한 권을 받았
다. 책의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, 붉은 화염이 휩싸
인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이들이 돌을 던지는 모습
이 담긴 사진 한장은 이 프로젝트의 출발을 잘 보여
준다.

도심에서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뇌레브로는 과
격한 동네, 가난한 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한 지역이
다. 총기까지 등장한 1993년 뇌레브로 폭동을 비
롯해 오랫동안 크고 작은 소요가 끊이지 않았다.
경제적으로 낙후된 이곳에는 노동자들이 주로 거
주했지만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인구가 급감했고
대신 이주 노동자, 난민, 학생들이 자리를 잡기 시
작했다. 현재도 이민자나 그 후손들의 거주 비율이
높다.

코펜하겐 시는 뇌레브로를 사회 공동체 안으로
끌어들이고 포용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고민했고
'모두를 위한 도시 생활' 등을 목표로 삼고 '사회적
통합'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. 방치된 공공 부
지를 공원 등으로 개발하고 건축 디자인 등을 통해
공공 건물 등 각종 시설들을 제안하기로 했다. 공모
를 거쳐 덴마크 건축회사 비야케인켈그룹, 독일
조경업체 토포텍원, 광주 비엔날레와 광주 풀리에
도 참여했던 수페르플렉스가 선정돼 사업이 시작됐
다. 프로젝트 이름 '수페르킬렌'은 땅 모양에서 아
이디어를 얻은 '거대한 썰기'라는 뜻이다.

시는 사업 시작 전 전방위로 회의 참가자를 모집
하고 공원 인근에 사는 주민과 수 차례 회의를 열었
다. 프로젝트 팀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
종 다양성을 공간에 반영하는 설계안을 내놓았다.
수페르킬렌은 세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'색깔'이 그
중심 역할을 한다. 블랙 마켓(Black Market), 레
드 스퀘어(Red Square), 그린 파크(Green Park)다.



'레드 스퀘어'의 붉은 색 조형물과 주민의 이야기가 담긴 태국의 무에타이 링.



'그린 파크' 공간의 조형

차를 세우고 블랙 공간을 거닌다. 검은 아스팔트
위에 흰 페인트로 그린 세로 등고선이 주 포인트다.
등고선은 덴마크 감독 라스 폰 트리의 영화 '도그
빌'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한다. 무엇보다 눈에 띄
는 건 아스팔트 광장의 작은 둔덕이다. 아이들은 오
르락 내리락하며 뛰어 다니고, 모험심 강한 아이는
자전거를 타고 질주한다.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이
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.

바로 붙어 있는 '그린 파크'는 수페르킬렌에서 가
장 면적이 넓다. 프로젝트 설계안 발표 당시 주민들
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. 산
책하고 조깅하고 나들이 하기 좋은 공원의 모습으
로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녹색 잔디 위에 놓인 하얀
테이블과 의자에서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
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.

강렬한 인상을 주는 곳은 '레드 스퀘어'다. 광
장 바닥과 벤치 등 조형물들을 모두 붉은 색 계열
로 통일한 공간이다. 광장 입구의 스포츠 센터와
커뮤니티 공간인 뇌레브로홀의 의미를 살려 이
곳은 문화 활동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구역으로
꾸몄다.

세 가지 구역으로 나뉜 공간에서 무엇보다 눈에
띄는 건 다양한 설치물들이다. 마치 놀이공원에 온
것처럼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. 프로젝트 팀은 “공
원에 설치할 소품을 고향에서 가져 온다면?” 이라



수페르킬렌 프로젝트 중 가장 인기가 높은 문어 조형

는 질문을 던진 후 출신 국가 62개국에서 108개 소
품을 공수했고, 일부는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배치
했다.

녹색 공간에는 아프리카 바베류, 카불에서 가
져온 그네, 스페인 탁구대를 비치했다. 차아 모향의
조형물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공수한 차아의 내온
사인이었다. 아제르바이잔의 버스 정류장을 본뜬
의자, 일본의 문어 미끄럼틀, 모로코에서 온 별 모
양 분수,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가져 온 체스 테이블
등에는 모두 '스토리텔링'이 있다.

수페르플렉스는 일반적인 주민 참여에서 한발
더 나아가 '극단적 참여(Participation Extreme
)' 캠페인을 벌였다. 자메이카, 스페인 등 5개국
출신 주민과 그들의 고향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 현
지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왔다. 팔레스타인 이민 2
세대인 10대 소녀는 중동에서 붉은 흙을, 태국에서
는 무에타이 링, 스페인에서는 거대 황소상을 가져
왔다.

취재를 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본 건 사업이
완료된 2012년과 2019년 사이 훼손 정도다. 거창하
게 사업을 진행하지만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
된 경우를 많이 보아사다. 물론 이곳 역시 준공 당시
보다는 색깔도 바래고, 그래피티 등 낙서도 존재하
고, 일부 기물이 파손돼 있기도 하지만 크게 훼손돼
보이지는 않았다.

지속가능한 재료를 채택하고 심사숙고해 디자인
을 결정하고 시가 꾸준히 관리하는 점도 있지만 무
엇보다 주민들이 초기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면서
'주민들이 만든 것, 내가 가져온 것'이라는 '소유'
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'주인 의식'을 가져 훼손
정도가 적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.

“시민들에게 변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
은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야기를 건네며 합의점을
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. 아티스트가 표현하는 내
용 역시 주민들,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.
그들의 이야기와 삶이 재료가 되고 그걸 상상 속에
서, 예술적으로 표현내 내는 게 예술가 그룹의 역할
입니다. 사업을 전개할 때 주민 참여는 정말 중요한
문제지만, 성공적으로 접목하기가 어렵습니다. 신
뢰를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, 그 시간의 힘을
받는 게 필요합니다.”

수페르플렉스 관계자는 “주민들에게 '오너십'을
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. 단순히 물질을 소유하는 것
이 아닌, 생각과 개념들을 나누고 그것이 프로젝트
에 반영되면서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자신이 의사
결정 과정과 아이디어 실현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고
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애착을 갖게 된
다”고 말했다. /mekim@kwangju.co.kr

※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

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/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

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.
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.
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.

국제보청기

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) 227-9940
062) 227-9970
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) 765-9940
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) 752-9940

2015~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[5년 연속] 수상
2016 CES INNOVATION AWARDS 수상
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(BIG Innovation Award) 수상